

# 오현섭 VS 김강식 4년만에 리턴매치

### 오현섭 재선 도전에 김강식 '3천여표차 패배' 설욕 버려 김재철·배성기·조삼랑 경선 가세...강용주 '참여당' 출마

## ■여수시장 입지자

여수시장 선거에는 7일 현재 민주당 소속의 현 오현섭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강식 남해안발전연구소 이사장, 김재철 여수재향군인회회장, 배성기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조삼랑 전 여수경찰서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모두 민주당 경선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국민참여당 강용주 여수시위원회 위원장이 도전장을 던지고 민주당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오현섭 시장은 행시(13회) 출신으로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전남도 행정·정부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후 2006년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 시장이 됐다.

오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여수엑스포 유치라는 업적 외에도 ▲엑스포 경제권 중심도시 ▲기후보호 국제시법도시 ▲문화예술창조도시 등 6대 실천 전략으로 '국제도시 여수' 건설을 위한 청사진 제시하고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는 "지구촌 사람 나눔 프로젝트 실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리층 가립, 2012 세계해양화·기상화 총회 유치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12위 올라 서울(83위)에 이어 국내 2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경도·화양지구·오션리조트·시티파크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민성리·돌

## ■여수시장 입지자



강용주(48) 김강식(54) 김재철(58) 배성기(57) 오현섭(59) 조삼랑(67)  
국민참여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여수시위원회위원장 남해안발전연구소이사장 여수재향군인회회장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여수시장 전 여수경찰서장

산·자산지구에 민자를 유치하는 등 지중해형 국제해양레저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초 2산단 조성 등 기업 투자여건을 꾸준히 개선, 4년 동안 7조9천여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4년이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와 개최 이후 국제도시로 도약과 발전하는 기반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또 한 번의 도전을 선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서 오 시장에게 3천500여표 차로 아쉽게 패했던 김강식 이사장은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 김 이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11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중소기업을 운영했으며 지난 1995년 귀향, 15·16대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까지 3차례 선거에 나섰으나 좌절을 겪었다.

그는 "여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경영 행정이 필요하다"며 "15년간의 여수 생활을 통해 겪은 아이디어와 비전을 시장에 반영하겠다"고 도전장

을 던졌다.

그는 또 ▲박람회 성공개최와 효율적 사후 활용방안 마련으로 100년 여수발전 토대 마련 ▲탄소배출권 거래소 여수유치 ▲돌산 갯길·벌치·간고등어 등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인재육성 장학금 증원으로 지역 인재 육성 ▲선진복지 시스템 구축 ▲한·중·일 트라이앵글 크루즈 관광 개발로 명품관광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편 출신으로 여수시청 공보관 등을 역임했으며 3대 여수시의원으로 활동한바 있는 김재철 여수재향군인회장은 30여년을 여수시청에서 근무한 토박이 공무원. 그는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와신상담 재기를 노려왔다.

그는 지난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생활 30년, 의정활동 4년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수많은 정책을 준비해 왔다"며 "풍요한 여수, 살맛나는 여수, 행복한 여

수를 건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 회장은 특히 "해양심층 양반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추진, 해양·물산업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재래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위한 문화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인재육성프로젝트로 명문고 육성 및 건설적 인재 양성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란한 이벤트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서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바람을 공유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배성기 전 시장은 대전엑스포와 2002 월드컵 조직위 근무 경험을 내세우며 민주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배 이사장은 지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2006년 5월 한국생 산성분부 회장, 2008년 10월 한국중부발전 사장으로 임명됐다.

배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고향을 위해 할 일이 무언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했다"며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과 여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람회 유치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등 여수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며 "30년간 산자부에서 일한 경험과 한국생 산성분부와 한국중부발전 등 공기업 사장으로 일한 노하우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배 전 시장은 특히 여수의 미래 설계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EXPO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섬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테마형 관광

지 개발 ▲수산업, 산단, 향만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파크 조성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생산적 복지와 여성의 역할 확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여수경찰서장 출신인 조삼랑 삼해실업 대표이사는 지난 2002년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경선과 2006년 열린우리당 경선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조 대표는 한 러수간 고속화도로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그동안 활발한 지역활동을 바탕으로 여수시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 같은 민주당 소속 도전자에 맞서 국민참여당 강용주 여수시위원회 위원장이 "비민주당 연대에 나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강 위원장은 재선 여수시의원 출신으로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여수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지방의회에 경제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 시장 등 일당 독점의 지방의회가 되지 않도록 참여당을 주목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당과 진보신당에서는 김영복·김미경 여수당협위원장의 출마가 각각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미지수다. 한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됐던 서석주 전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과 성해석 전 여수시의회 의장, 최종길 한국과학기술진흥원 공제조합 이사장은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 ■쟁점 & 변수

민선 여수시장이 탄생한 이후 재선 시장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3리(麗) 통합 초대 시장을 김광현 1대 시장을 비롯해 2대 주승용 시장, 3대 김홍식 시장까지 모두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통합 초대시장이었다 김광현 시장은 1998년 열린 민선 2대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나오나 당시 무소속이었던 주승용 후보에게 1만6천여표 차이로 무릎을 꿇었다. 또 3대 선거에서는 주승용 당시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김홍식 후보에게 1만7천여 표로 패했다. 4대 선거에서는 김홍식 당시 시장을 경선에서 제친 오현섭 현 시장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승리했다.

오 시장은 역대 시장 중 가장 강력한 재선 도전자로 꼽힌다. 결집률은 경선 방법.

7일 현재 민주당 중앙당이 여수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 측은 시민배심원제가 결국은 특정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노림수로 공정한 경선

- ① 사상 첫 재선 시장 나오나
- ② 시민배심원제 확정 여부
- ③ 여수고 총동문회 표심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여수는 과거 여수와 여천이 통합된 지역. 따라서 아직도 미약하나마 소 지역주의가 남아있다. 정가에서는 김강식 후보가 여수 출신인 반면, 나머지 후보는 모두 여천 출신이어서 김 후보의 유리함을 내다보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수지역 최대 화백인 여수고 총동문회의 결집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지난해 총동문회장으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동문 결집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력 후보 중 오현섭 시장이 순천고 출신인 반면, 강용주·김강식·배성기·조삼랑 후보 등이 여수고 출신이어서 동문 결집 여부가 주목된다.

토론회가 열릴 경우 최대 예상 쟁점은 여수엑스포. 오현섭 시장에게는 '여수박람회'가 최고의 업적이자 재선 도전의 가장 확실한 명분이지만 나머지 후보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를 7바퀴나 돌았다"며 "엑스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시장의 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도전자들은 "엑스포 시작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숙박 시설 등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며 "엑스포 성공을 위해 시장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 ■도의원 입지자

여수지역 전남도원의원이 기존 4석에서 6석으로 늘면서, 입지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1선거구(돌산읍·남면·삼산면·국동·대교동·월호동)에서는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종철 전남도의원 외에 김홍식 전 여수학원연합회장, 노순기 여수시산인협회 부회장, 박정근 전 전남도의원, 이광일 전 광주매일 부국장, 이행우 전 여수시의원, 정현호 전 여수시문화원 사무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2선거구(여수·문수동)에서는 현 송대수 전남도원에 맞서 전 열린우리당 여수갑 청년위원장인 김경철 예비건설 대표, 김점유 여수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성미숙 바르케살기협의회 위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송 의원은 당초 시장선거 출마를 검토하다 한발 물러났으며 유일할 여성후보인 성씨는 "엄마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싶다"며 출

## 선거구 4곳→6곳으로 늘어 현직 등 26명 대거 출사표

마지를 다졌다.

3선거구(한려·동문·중앙·총무·서강·광림동)에서는 김상남 여수YMCA 이사장 김석두 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성해석 여수시의원이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출마를 공시화했다. 조순식 고려대학교여수지회 사무국장도 출마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4선거구(여천·율촌·소라·화양·화정면)에서는 민주당 전남도당 유비쿼터스 위원장인 최종현 현 전남도원에 맞서 정민근 여수시의원이 결실련 활동 등 왕성한 시민단위 활동 경험을 무기로 도전장을 던졌다.

5선거구(쌍봉·주삼·삼일·묘도

동)에서는 김상배 전 여수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김형근 전 전남도의원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박병열 전 전남도의원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 서현근 여수시의원 순천대 품질경영과 겸임교수, 최준원 전 광남일보 부국장 등이 민주당 공천장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6선거구(시전·둔덕·미평·만덕)에는 여수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일용 현 전남도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이광진 전 여수비전 21 대표와 주갑식 여수체육회 운영이사가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김종철(민·55)	전남도의원
	김홍식(민·48)	전 여수학원연합회장
	노순기(민·52)	여수수산업협회 부회장
2	이광일(민·45)	연료인
	이행우(민·43)	전 여수시의원
	정현호(민·49)	전 여수시문화원사무국장
3	김종철(민·44)	선정유치원 이사장
	김영철(민·56)	예일건설 대표
	김점유(민·47)	여수교육발전협의회위원
4	성미숙(민·41)	바르케살기협의회 위원
	송대수(민·54)	전남도의원
	김상남(민·51)	여수 YMCA 이사
5	김석두(민·60)	주유소협회 여수지부장
	성해석(민·57)	여수시의원
	조순식(민·53)	고려대학교여수 지회 사무국장
6	정민근(민·59)	여수시의원
	최종현(민·58)	전남도의원
	김상배(민·44)	전 여수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7	김형근(민·56)	전 전남도의원
	박병열(민·57)	전 전남도의원
	서현근(민·59)	여수시의원
8	최준원(민·52)	연료인
	서일용(민·47)	전남도의원
	이광진(민·44)	전 여수비전21 대표
9	주갑식(민·50)	여수체육회 운영이사

**전통주 제조연수생 모집**

우리 전통주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무엇보다 맛과 향이  
가득한, 전통주, 가짜주  
가득한, 전통주, 가짜주  
(방법도 가능함)

●모집기간  
조선대학교: 3월 3일부터 접수  
오성대학교: 3월 5일부터 접수

●수업기간(54개월 15주)  
조선대학교: 3월 8일 - 6월 1일  
오성대학교: 3월 10일 - 6월 1일

●문의처  
조선대학교: 010-4561-0700  
오성대학교: 010-4561-0700

(계좌입·현금입)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요리학원**

●특수 장학금 1억 ●

종류	기간	수강료
주요	3개월	100만원
주요	6개월	150만원
주요	9개월	200만원
주요	12개월	250만원
주요	15개월	300만원
주요	18개월	350만원
주요	21개월	400만원
주요	24개월	450만원
주요	27개월	500만원
주요	30개월	550만원
주요	33개월	600만원
주요	36개월	650만원
주요	39개월	700만원
주요	42개월	750만원
주요	45개월	800만원
주요	48개월	850만원
주요	51개월	900만원
주요	54개월	950만원

●상담전화●  
**226-5500**

남성 헤어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님네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님네가발**

5555-1000 "사랑세상 반영"

**가발**

초슬림!! **50만원~**

최신형 디자인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여운 유행의 인기를 높여주는  
영리한 유행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062-873-5858, 873-8882  
화장미술계 011-600-9253